

## 1998-2019 여성—문학하다, 세상을 쓰는 페미니즘!

---

- 홍나래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위상과 과제에 대하여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김은하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로서의 재일조선여성문학

#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위상과 과제에 대하여

홍나래

성공회대 학술연구교수

목차

- 1 서론
- 2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 동향과 의의
- 3 선택·집중된 기획의 힘과 연구 대상 확장의 필요성
- 4 관심·참여·소통하는 연구 장에 대한 기대

본고는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위상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당 학술지인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고전문학 연구 논문의 경향과 의의를 도출하고, 선택 집중된 기획 연구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관련 논문은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여성문학사 서술이나 여성의 글쓰기와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집적된 연구들을 아우르며 연구 담론을 선도해가고 있었고,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 의한 학문 장의 연결은 고전부터 현대까지 문학·문화 현상들을 통시적으로 살피며 이론화하도록 했다. 즉 『여성문학연구』를 통한 고전문학 연구는 우리 토대에서 여성문학·문학 현상·글쓰기 이론을 사적으로 이으면서 보편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문학 연구는 기획 주제로 선택되고 집중되면서 집약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주의라는 방법론과 주제가 고전 연구자들에게 시대와 장르를 확장하도록 이끌었고, 『여성문학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독려하며 활발히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전과 시도가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우리 문학 연구가 풍성해지고 사회적 실천 의의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전을 공부하는 학문후속세대를 북돋우고, 문학사 및 문학이론과 같은 장기적 연구를 지속시키며, 여성문학 관련 연구 자료나 사업 현황에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도 넓혀야 한다.

인구감소와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후속 세대들이 학술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연구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고전 전공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응용 학문 연구자들과 연계하거나 고전과 현대를 잇는 시기와 대상에 대하여 보다 전공을 넘나들며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관련 학문·학회 간 연계와 소통을 추진할 때, 고전에서 이어지는 현재의 문학과 문화가 더욱 입체적으로 구성되면서 우리들의 원형적 사고와 감정도 총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 연구 역시 지난 20년간의 성취에 더하여 여성주의

시각으로 고전과 현대,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며 그 실천적 의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국문핵심어: 『여성문학연구』, 고전문학,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여성주의, 여성주의 미학, 소통

## 1 서론

한국여성문학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학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편찬했고,<sup>1</sup> 2013년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에서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sup>2</sup>를 엮으면서 본 학회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검토하였다. 20주년을 맞은 현재는 이전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학회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왔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시기이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 이에 대한 백래시 현상까지, 일상에서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고민하면서 대학에서의 연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고무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고전문학을 여성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경우 최기숙의 언급대로 연구자들이 젠더적 시각으로 고전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을 유효하고 정당한 방법론이자 영역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sup>3</sup>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양성평등 기대에 따라, 고전문학 혹은 문화콘텐츠의 교육과 활용은 생각지 못한 갈등과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래서 〈선녀와 나무

- 
- 1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1-476쪽.
  - 2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한울아카데미, 2013, 1-456쪽. 이 책 1부에 김양선의 「한국여성문학연구 장의 변천과 과제—〈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가 실렸는데, 이는 『여성문학연구』 제28호에 실린 논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연구대상 학술지인 『여성문학연구』에 나온 글을 참고하겠다.
  - 3 최기숙, 「탈경계를 위한 도전: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의의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5쪽.

꾼)·〈서동요〉를 비롯해서 고전 서사들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면서도 관음증·성폭력으로만 읽는 데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지, 한국연구재단이나 박물관 혹은 지자체 사업과도 맞물려 진행되는 전통과 민속·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기념할 때 전근대적 가치와 윤리—가문·가부장 중심주의, 맹목적인 효와 열, 신분과 직역의 우열론 등—를 고착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성문학연구』의 고전문학 연구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전 문학과 문화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해석하며 문학사의 범주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사유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나아가고자 했다면, 이제는 이와 함께 고전 텍스트가 교육, 수집, 활용되는 현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동향과 의의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와 학술지에 고전문학·구비문학 연구자로서 기대하는 바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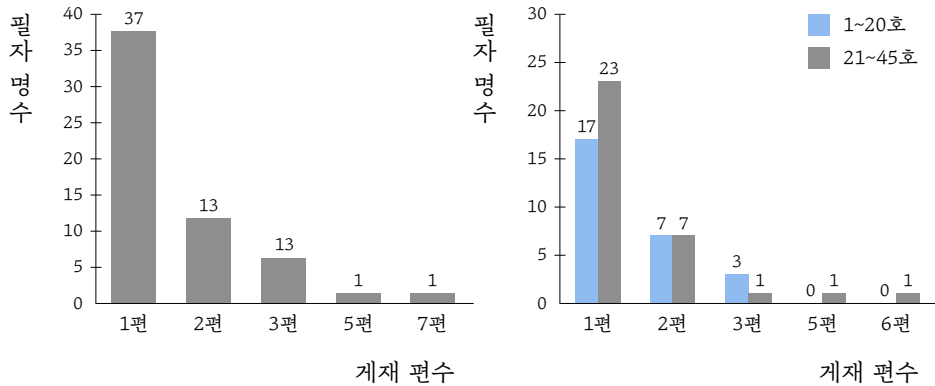
## 2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 동향과 의의

『여성문학연구』는 현재(2019년 11월 1일) 47집까지 발간되었으며, 여기에 실린 총 619편의 글 중 571편은 정규 논문이고 48편은 비정규 논문으로 분류된다.<sup>4</sup> 창간부터 20주년까지를 살펴보면, 1999년 창간된 1호부터 2018년 출간된 45호까지는 592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정규 논문은 550편, 비정규 논문은 42편이다. 논문들 중 한문학, 시가, 고소설, 구비문학과 같이 고전문학 영역으로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는 2002년에 발간된 『여성문학연구』 제7호부터 현재까지 논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9년 47호까지의 논문은 총 525편으로, 이는 492편의 논문과 비정규논문 33편(서평, 논문 소개 등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1999년 제1호부터 2001년 제6호까지의 학술지에는 79편의 논문과 15편의 비정규논문이 있다. 필자는 1~6호까지의 글 중 발간사나 서평, 자료 소개와 같이 논문체제로 구성되지 않은 글들을 위의 사례에 따라 비정규논문으로 분류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sereId=001380>(접속일 2019.11.1.)

분류되는 연구는 약 89편으로 전체 논문 중 15%에 해당된다.<sup>5</sup> 물론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분류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들, 대표적으로 근대 문학·문화 연구나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과 같은 연구들은 필자의 판단에 따라 선별되어 수치화될 수밖에 없었다.<sup>6</sup>

다음은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게재 논문 수를 수치화한 것인데, 특히 10년 단위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여성문학연구』 1호부터 45호까지 총 550편의 논문 중 정규논문만 비교하면,<sup>8</sup> 1호부터 2008년 출간된 20호까지 269편, 2009년 출간된 21호부터 2018년 출간된 45호까지 281편이 게재되었다. 본 학술지에 고전문학 논문을 게재한 연구

5 논문의 %는 정규 논문 수에 따라 계산하였다.  
 6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근대 문학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의 경우 이를 고전문학으로 우선 포함시켰다. 또한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과 이에 대한 비교 분석 논문들(2편), 외국 신화 연구(1편), 고전문학 전공자 2인과 한국문학 전공자 1인이 공동 저술한 논문(2편) 등을 고전문학 연구로 분류하였다. 공동저술인 경우 해당 저자를 모두 고전 연구자로 분류했다.  
 7 앞서 최기숙, 김양선은 학술지 필자들의 논문 투고 횟수, 성별, 성비, 연구 분야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류와 통계는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계획하기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고 역시 선학들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필자들의 투고 횟수와 성별, 연구 분야, 유사 학술지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였다.—최기숙, 앞의 글, 5-44쪽; 김양선, 「한국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5-669쪽.  
 8 이후 ‘논문’은 정규 논문을 가리킨다.

자들은 총 58명으로, 2편 이상 게재한 21명 중 6명은 3편, 1명은 5편, 1명은 7편을 투고하였다. 학술지 투고 논문들을 10년 단위로 살펴볼 때, 고전문학 연구의 경우 1호부터 20호(2008년)까지 28명 필자에 의해 38편(전체의 14%)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1호부터 45호까지 33명의 필자에 의해 51편(전체의 18%)의 논문이 게재되었다.<sup>9</sup>

『여성문학연구』에서 현대문학에 비해 고전문학 연구가 적은 것은 김양선의 지적처럼, 한국고전여성문학회가 한국여성문학학회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고, 고전문학이라는 연구 대상과 시기에서 변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정된 연구자 집단에서 연구자들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를 우선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sup>10</sup> 이에 더하여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문학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 평등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비춘 것에 비해, 한국고전여성문학회의 경우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에 의한 접근과 여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한국 고전문학과 여성문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온건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설립 목적과 태도의 차이로 인해 본 학회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학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문학·문화의 분석에 집중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시대문화적 배경이 현재와 다른 고전문학의 경우 다수의 고전 연구자들이 여성을 키워드로 삼을 때 방법론과 지향에서 보다 접근하기 용이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도 보인다.

9 본고는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10년간 변화를 살피기 위해 1~20호, 21~45호를 분리하여 통계를 냈다. 따라서 오른쪽 표에서 1편 투고자 명수의 합이 왼쪽과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1~20호에 1편, 21~45호에 1편의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전체로는 2편의 논문을 투고했지만, 각각 단위에서 1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2편의 공동저자(3인) 논문인 경우, 필자를 모두 고전문학 투고자로 표기하면서 각 필자에 따른 논문으로도 각각 집계되었기 때문에 논문 수보다 필자가 늘었다.

10 김양선, 앞의 글, 656쪽.

1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및 학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 학회의 설립목적 참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InsiSearSoceView.kci?insiGeneInfoBean.insiId=INS000001825> (접속일 2019.11.1.)

그렇다면 본 학술지인 『여성문학연구』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고전 분야 논문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뚜렷한가? 지난 10년간 『여성문학연구』가 기획한 주제와 고전문학 연구 논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여성문학연구』 호수와 특집 주제                                   | 특집논문 | 일반논문 |
|--|------|------|
| 21호 여성, 1950년대의 문화지형                                 |      |      |
| 22호 여성, 이주와 정주 사이                                    |      | 2    |
| 23호 4.19 혁명과 여성                                      |      | 1    |
| 24호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 2    | 1    |
| 25호 한국 근현대시와 박완서                                     |      |      |
| 26호 21세기 여성문학 문화연구의 쟁점과 전망                           |      |      |
| 27호  |      | 2    |
| 28호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 1    | 5    |
| 29호 몸과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정치적 상상<br>『사상계』/『사상계』와 그 혹은 그녀의 시대 |      | 4    |
| 30호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 1    | 1    |
| 31호 『제국신문』, 근대 여성의 지식 담론 재현의 장                       | 1    |      |
| 32호 여성과 빈곤   | 2    | 4    |
| 33호 불온과 섹슈얼리티  | 1    | 1    |
| 34호 공론장으로서 신소설과 젠더기획                                 |      |      |
| 35호 재난시대의 슬픔과 애도                                     | 2    | 1    |
| 36호 우리 안의 ‘내전’—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                       | 1    | 1    |
| 37호 박정희 시대와 젠더                                       |      |      |
| 38호 일하는 여성—여성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 인문학의 성찰                    | 2    |      |
| 39호 정동의 힘과 주체화의 네트워크:<br>정동 이론과젠더 연구의 새로운 집합을 위하여    |      | 1    |
| 40호  |      | 1    |
| 41호 (지역,기념,여성—문화지리와 젠더)                              | 2    | 4    |
| 42호 여성주의적 지식과 지식체계                                   | 2    |      |

12 27호와 40호에는 특집으로 표기된 논문이 없이 일반논문만 실렸는데, 해당 학술대회 주제는 각각 ‘여성과 문명, 젠더 정치’,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이다. 41호에는 특집 주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해당 학술대회의 제목을 ( )에 넣었다.



|   |     |     |
|---|-----|-----|
| 43호 1980년대와 여성문학: 광장에서 불어온 바람과 여성 글쓰기의 변이과정 |     | 1   |
| 44호 공간과 젠더정치                                | 1   | 1   |
| 45호 1980년대, 박완서 문학과 사회                      |     | 2   |
| 합계  | 18편 | 33편 |
| 총합  | 51편 |     |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의 기획주제는 해당 학술지의 특집논문 주제로 이어진다. 51편의 고전 분야 논문 중 특집논문이 18편이고 일반논문이 33편인데, 일반논문 중에서도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 ‘소통’과 ‘권리’ 추구」(45호),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44호)처럼 여성 글쓰기나 주체화 문제 등을 다룬 논문들은 투고된 학술지 전후의 특집과 연계될 수 있고, 이런 글들이 12편 정도이다.<sup>13</sup> 그렇다면 고전문학 연구 논문 중 과반수 이상이 기획 주제와 연관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학술대회와 학술지의 선전 및 논문 투고 독려 속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해당 주제의 논문이 증가하면서 담론이 매력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4</sup>

한국여성문학학회와 한국고전여성문학회는 기획주제나 투고 논문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본 학회의 학술대회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2010)이나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2012)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회의 ‘여성 글쓰기 그리고 문학’(2011) 기획과 상통하고, 한국고전여성문학회의 기획주제였던 ‘여성과 몸’(2010) ‘여성의 잘 나이들기’(2011) 주제와 연관된 논문들을 본 학술지의 일반논문에서 찾을 수도 있다.<sup>15</sup> 그밖에도 여성의 감정 등 공유되는 주제들이 있고, 연구자들도 두 학회에 모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많다.<sup>16</sup> 그렇다면 고전문학 연구에서 『여성문학연구』와 『한국고전여성문학연

13 황수연, 「조선 여성의 공적 발언: ‘소통’과 ‘권리’ 추구」,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01-331쪽; 김정경,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83-114쪽.

14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 중 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10편까지 참고해보면, 기획 주제 아래에 40여 편의 논문이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연구 장에서 담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여성문학학회 고전 분야 논의에서 기획 주제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구』의 차이는 개별 논문의 특성보다 학술지 속 다른 논문들과의 관계성 문제, 그리고 연구자들의 학문적 실천 문제<sup>17</sup>로 보인다.

우선 여성문학사 서술에 대한 문제의식만 해도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11호), 「여성주의 문학 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16호),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생산을 위한 시론」(43호)과 같이 주제를 선도하고 있는데,<sup>18</sup> 그 기저에는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24호)나 「조선시대 규훈서와 여성의 문자문화」(28호), 「공적 담론의 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의 한글 소지 쓰기를 중심으로」(45호) 등과 같은 여성 글쓰기·읽기에 대한 논의들이 뒷받침되어 있다.<sup>19</sup> 또한 「질서를 질서로 인식하기」(42호)처럼 여성적 시각으로 문학사나 장르론에 대한 다시 읽기를 설화 분류에 대한 문제제

- 
- 15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제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33-56쪽; 최기숙, 「노화의 공포와 공생 지향의 상상력」,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95-230쪽과 같은 논문이 이에 해당되는데,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본 학회에서도 2000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여성의 몸, 몸의 담론’을 주제 삼은 후 제5호의 특집으로 엮은 바 있다.
  - 16 최근 10년간 『여성문학연구』에 투고한 고전문학 연구자 33명 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도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21명이고, 본 학술지에 2편 이상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 투고했다.
  - 17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할 학술지를 선택할 때 연구 주제와 시기, 학회와의 친연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다수의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한 연구자들의 경우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으로 인근 학문의 장들을 연결시키며 담론을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언급한 학문적 실천이란 연구자가 계획한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영향력, 연구자의 학회 활동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 18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77-400쪽; 이경하, 「여성주의 문학 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7-30쪽; 최기숙,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생산을 위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55-198쪽.
  - 19 이경하, 「중세의 여성 지성과 문자의 관계」,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31-55쪽; 이지영, 「조선시대 규훈서와 여성의 문자문화」,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81-113쪽; 황인순, 「공적 담론의 주체로서의 여성: 여성의 한글 소지 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33-368쪽.

기로 세분화하기도 했다<sup>20</sup>. 그런데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분야 논문들이 비교적 적음에도 이렇게 논의를 뒷받침하며 앞선 주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본 학술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 논문들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학술지에 집적되면서 기록 텍스트 중심의 문학사를 구술 및 문학 경험까지 포괄하는 문화사적 맥락으로<sup>21</sup>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 논문의 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데에는 3편, 5편, 6편의 논문을 적극적인 투고한 연구자들 덕분이기도 한데, 이들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에도 각각 8편, 3편,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외에도 여성문학사나 글쓰기에 천착한 연구자들이 양쪽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으로 볼 때, 고전문학 연구자들 중 여성주의 연구나 여성문학사 서술에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자들이 여성주의 학문의 장들을 연결시키며 담론을 키우기 위해 양성하게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에 의한 학문 장의 연결은 비단 논문의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고전부터 현대까지 문학·문화 현상을 통시적으로 살피며 이론화하도록 했다. 한국여성문학학회는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 지성의 창출’(24호)이라는 기획으로 지성의 의미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정의하고 구축하며 여성의 말하기·글쓰기·여성작가를 재조명하였는데, 고전 연구는 한문문명권에서 한문 글쓰기에 한정되었던 지성의 젠더화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구술의 영역에서 여성 지성이 창출되는 방식을 살폈다. 그리고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통해 고전에서 분석한 성과가 근대 계몽기와 1960년대까지 연결되면서 지성의 젠더화 전략을 통시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여성 지성의 문제가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28호)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규훈서의 독해와 필사 문제부터 식민지기·해방기·1980년대에 이르는 번역과 수용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가려져 있었던 여성 번역가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이렇듯 『여성문학연구』를 통한 고전문학 연구는 우리 토대에서 여성 문학·

---

20 유정월, 「질서를 질서로 인식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7-34쪽.

21 최기숙, 앞의 글, 34쪽.

문학 현상·글쓰기 이론을 사적(史的)으로 이으면서 보편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여성에 대한 통시적인 이해는 문학사나 글쓰기뿐만 아니라 감정, 빈곤, 노동, 일상사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근현대의 여성문학·문학 활동이 고전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고전시대 문학을 향유하던 여성 작가·독자층의 열망이 새로운 사상·사회 제도·교육을 통해 변전되어 왔음을 확인케 한다.

한편 『여성문학연구』의 고전 연구 분야에서 남성 필자는 20년 간 6명이 총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최근 10년 간(2009년~2018년)에는 남성 필자 1명이 1편의 논문(32호)을 게재하였을 뿐, 여성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최기숙의 언급대로 고전 연구 분야에서 젠더 연구가 유효하고 정당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에,<sup>22</sup> 투고자의 남녀 성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여성문학연구』에서 남성 고전문학 연구자가 희소하다는 것은, 여성적 시각은 고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자 덕목이지만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삶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 문화·문학 서술에 문제제기를 하며 새롭게 이를 이론화하면서 영역을 확장해가는 도전적 역할을 여성 연구자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자들이 『여성문학연구』뿐 아니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및 다양한 고전 관련 학술지를 넘나들면서 담론을 잇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고전 연구에서 여성 학문후속세대가 늘어남다면 지속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3 선택·집중된 기획의 힘과 연구 대상 확장의 필요성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연구가 이론 성취와 의의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양선은 앞서 우리가 여성주의 시각으로 학회와 학술지라는 공동의 연구 장에서 공부하고 소통할 때 지녀야 할 학문적 태도와 확보해야 할 조건 등을 언급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성문학 연구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되새기며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서로서로 함께 지속적으로

22 위의 글, 25쪽.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의 지적은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과제로 남아있다.<sup>23</sup> 따라서 본고는 이에 더하여 고전문학 연구가 맞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분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담론을 이끌어 나간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성문학사, 글쓰기, 장르 체계, 감성에 대한 업적들은 연구자들이 관련 학회를 넘나들며 논의를 엮고 담론을 키우며 일구어낸 성과이다. 이들 중에는 한문학이나 고소설 전공자로서 근대 문화를 연구하거나 때로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구비문학 연구자가 한문 혹은 한글 교술이나 현재 활용되는 고전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등 앞장서서 장르를 허물고 매체를 확장해서 본 학술지의 고전 연구 논문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었다.<sup>24</sup> 여성주의라는 방법론과 주제가 고전 연구자들에게 시대와 장르를 확장하도록 이끌었고, 본 학술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독려하며 활발히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도전과 시도가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될 때, 우리 문학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풍성해지고 학문의 사회적 실천 및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제도적 지분도 더욱 확보될 것이다.<sup>25</sup> 이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전을 공부하는 학문후속세대를 복돋우고, 문학사 및 문학이론과 같은 연구를 지속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성문학사를 서술하고 장르 양식을 검토하며 여성주의 문학 이론을 정립하는 과제는 공동의 연구 토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

23 김양선, 앞의 글, 664-666쪽.

24 21호부터 45호까지 『여성문학연구』에 실린 고전문학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에 따르면 고전문학 연구 분야를 크게 한문학, 고전산문, 고전시가, 고전비평, 구비문학으로 볼 수 있으며, 국문학사까지 포괄할 수도 있다. 게재된 논문들이 모두 명확히 분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나 외국 신화의 경우 우선 구비문학으로 분류했고, 고전산문으로 묶을 수 있는 고소설과 국문 글쓰기는 대상의 특성을 살려 구분하여 보았다. 또한 고전연구자에 의한 근현대 문화 연구의 경우, 고전 연구와 구분되는 시간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살폈다. 임의적인 분류로 보이지만, 이는 고전문학 연구에서 장르와 시간 경계가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분야 | 한문학 | 고소설 | 시가 | 구비문학 | 국문 글쓰기 | 문학사 | 근대 | 현대 | 총합 |
|----|-----|-----|----|------|--------|-----|----|----|----|
| 편수 | 14  | 11  | 1  | 12   | 3      | 2   | 5  | 3  | 51 |

로 기획하여 수행해야 되는데, 두텁지 않은 인력풀에서 이러한 시도는 열정적인 개인에게 의존해 왔다. 지금까지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 분야를 담당해 왔던 중견 연구자들은 학교나 연구소에 소속되거나 공동 과제를 하며 서로 학문적 유대감을 키워왔으나, 학회나 연구재단으로부터 자율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은 학문후속세대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고전 영역은 논문 투고가 적다보니 특집 주제와 관련된 논문 외 개별 논문들은 문제의식이 적층되어 확장되기보다 반응 없이 파편화되는 듯하다. 이는 현대문학 연구가 기획이 아니더라도 같은 작가나 소재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과 대조되면서, 기획 주제 외의 고전 연구를 점점 고립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전문학 연구자가 독창적인 주제의 개별 논문을 투고할 때 본 학술지를 고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17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여성생활사 자료집』의 번역 작업은 여성주의 고전문학 연구의 주요한 토대가 되었으며,<sup>26</sup> 이로 인해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 일상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며 다양하게 연구 영역이 확산되었고, 해당 연구원들 또한 『여성문학연구』에도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다. 고전문학이나 여성의 문학 활동을 연구할 경우, 글로 쓰인 텍스트 외에도 읽고 듣고 말하고 향유한 문학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사·생애담과 같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며 자료의 서사를 해석하는 문학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 문학·문화·역사에 대한 토대 연구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 자료 수집 및 공동 연구 과정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에 대한 주요한 시각이 형성되면서 그 결과물이 향후 여성주의 연구의 원천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문학과 문화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

---

25 최기숙은 고전 연구가 제도적 차원에서 고전산문·한문학·고전시가·구비문학의 전공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고전여성문학은 대학 교수채용 등에서 특화되지 않는 등 학적 영향력이나 학술적 지위에 맞는 제도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최기숙, 앞의 글, 25쪽.

2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수집, 목록화 및 번역〉,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수집, 목록화 및 번역〉, 〈19-20세기 여성생활사 자료 수집, 목록화 및 번역 과제〉가 한국연구재단에 각각 2002년, 2004년, 2008년 선정되어 1년, 2년, 3년간 진행되었다.

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회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여성 관련 자료 수집의 목적과 활용에 대해 비판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 작업이었던 시집살이 이야기<sup>27</sup>나 이주민 구술 설화<sup>28</sup>와 같이 여성 구연 자료들의 경우 고전·구비문학 전공자들이 조사한 후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삶과 이야기가 다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본 학술지에서는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의 서평으로 천혜숙의 「이야기로 재현된 여성의 삶과 역사」(29호)를 싣고 있지만,<sup>29</sup> 그 외에는 다른 여러 학술지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장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박물관·아카이브 등을 중심으로 고전·민속 자료들이 수집되어 보존·전시되거나 활용되고 있다. 대전 중구청에서 설립한 한국족보박물관의 사례를 보면, 박물관의 족보가 성씨문화 자부심의 상징이 되면서 연간 30만 명이 찾고, 244개 문중이 성씨 조각품을 경쟁적으로 기증하였으며, 매년 열리는 효문화뿌리축제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등 박물관은 문중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sup>30</sup> 한편 이 박물관에서는 남성·혈연·문자 중심의 콘텐츠에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덧붙여 ‘지워진 어머니를 보다’ 특별전을 기획하거나 ‘한국의 족보와 여성문화’(2014), ‘한국의 종가와 여성문화’(2015)나 ‘조선의 여성 선비’(2018)와 같은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sup>31</sup> 곧 전통·민속·유물을 소장하고 전시하며 가부장 중심주의나 가문의식이 재확인되는 장

27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 연구’는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전10권, 박이정, 2013이 출판되었다.

28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구축> 과제는 2016년 한국학진흥사업단 토대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되었다. 박현숙, 「설화 아카이브 현황과 활용의 문제」,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117-135쪽. 이주민 구술 자료는 과반수이상 결혼 이주 여성들로부터 채록되었다고 한다.

29 천혜숙, 「이야기로 재현된 여성의 삶과 역사」,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61-468쪽.

30 심민호, 「가문이야기와 한국족보박물관 아카이빙 사례」,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344-350쪽.

소에서 학예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른 예로 각 지방에서는 지역 고유의 설화를 조사하여 문화산업을 개발하는데, 전라도 순천시의 경우 설화조사와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숲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sup>32</sup> 고흥군의 경우 고흥 설화 1000편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데에서 나아가 〈유몽인 스토리텔링 마을〉, 〈분청사기 설화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고전문학·구비문학 연구자들은 필연적으로 자료의 선택과 효용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고전 연구자들은 고전의 교육이나 활용 현장에서 학문적 해석과 효율성·심미성·대중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 『여성문학연구』에서도 「이성강의

- 31 ‘지워진 어머니를 보다’ 특별전은 이은정 작가의 그림 〈김장순 할머니 4대 가계도〉를 전시하였고, ‘내 이름은 풀른치 그리고 현수엄마’와 같은 이주 여성에 대한 기획전도 있었다. ‘한국의 족보와 여성문화’에서는 고전소설이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을, ‘한국의 종가와 여성문화’는 보수적인 제목과 달리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이나 여성 영웅 소설, 박완서의 작품 세계 등을, ‘조선의 여성 선비’는 외척 가문의 역사와 함께 김호연재, 임윤지당, 이병허각 등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한국족보박물관의 심민호 학예사는 여성이 빠진 족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틈틈이 여성의 얼굴, 가계도, 이야기, 역사에 대해 기획하게 되었다고 했다. 「내 이름은 풀른치, 그리고 현수엄마」, 한국족보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2012; 「족보에 숨겨진 어머니의 얼굴, 지워진 어머니를 보다」, 한국족보박물관, 2014; 「제3회 족보대학, 한국의 족보와 여성문화」, 한국족보박물관, 2014; 「제4회 족보대학, 한국의 종가와 여성문화」, 한국족보박물관, 2015; 「제7회 족보대학, 조선의 여성 선비」, 한국족보박물관, 2018; 한국족보박물관 학예사인 심민호 주무관 인터뷰 참고.
- 32 김민수, 「지역 설화에 나타난 숲 인식과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향—순천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385-399쪽.
- 33 고흥군은 스토리1000국 사업으로 지역 대학생들을 조사원으로 삼아 고흥군 설화를 1차 조사한 후, 동화 작가들로 하여금 설화를 선별하여 재조사하고 동화책을 출판하도록 했다. 이 작업에 참여하여 「소곤소곤 설화모리: 고흥설화1000국」(2018, 상상오디자인)을 공동집필한 김미승 〈스토리킹〉 대표는 군천설화박물관에서 4차례 강의도 했다. 고흥군은 지역 주민들의 ‘고흥 설화 이야기 자랑대회’를 개최하는 등 설화 특화 마을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설화 관련 사업과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스토리킹〉 김미승 대표를 인터뷰했고,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여수MBC News 「설화로 농촌마을 특화」, 2019.3.1. <https://www.youtube.com/watch?v=kxtzS2MM-DM>(접속일 2019.11.1.)를 참고함.



〈천년 여우 여우비〉에 나타난 동양적 모티프 분석」(22호)이나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29)와 같이 설화 모티프를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변용한 사례를 검토하는 연구가 있다.<sup>34</sup> 또한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의 소환」(41호)처럼 공원을 조성하면서 제주 신화의 창조성이 탈각된 채 보편적인 모성·어머니 이미지로 된 것을 비판하는 논문도 투고되었다.<sup>35</sup> 하지만 역동적인 현장에 비해 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아직 미미하다. 더하여 콘텐츠의 활용, 창작·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동화 연구 논문이 2001년 제6호에 기획으로 3편 실린 것 이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sup>36</sup> 이제는 고전 콘텐츠의 유용성이나 재현된 콘텐츠를 원형과 비교하는 사례 분석에서 나아가 현재의 상징과 현상에 대해 여성주의 시각으로 윤리적·미학적 의의를 평가하며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관심·참여·소통하는 연구 장에 대한 기대

『여성문학연구』에서 고전문학 분야는 최근 10년간 18%까지 논문 비율을 올렸으며 기획주제들은 앞으로도 연구자들에게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주의 관점으로 고전문학을 공부하며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적기 때문에 본 학술지에서 고전연구 분야는 기획주제나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주의 문학 연구를 계토화하지 않고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유효한 방법론으로 위상 짓기 위해서라도,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성주의 연구 장에 참

34 김영옥, 「이성강의 〈천년 여우 여우비〉에 나타난 동양적 모티프 분석」,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283-318쪽; 황인순,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드라마 〈아랑사또전〉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91-415쪽.

35 유정월,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 할망’의 소환」,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7-37쪽.

36 김경중,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 『여성문학연구』 제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25-354쪽; 김자연, 「동화에서 남녀평등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55-374쪽; 이상진, 「한국 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 형상화와 성역할 문제」, 『여성문학연구』 제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75-410쪽.

여하는 고전 연구자를 늘리고 연구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박완서, 1980년대, 러시아혁명 같은 기획 주제로 학술대회가 매년 열려 현대문학 연구가 주가 되고 고전문학 발표는 연 1회로 한정되었다. 또 고전문학 제분야에서는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대학의 연구자 집단도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가 여성주의 방법론으로 고전을 연구하더라도 현대문학 중심의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우선시하기보다 전공 학회나 연 4회 개최되는 한국고전여성문학회로 유도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 분야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고전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장기적인 연구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에서 연구 인력이 갑자기 늘지도 않을 것이고, 재정지원을 보증하지 못한 채 연구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학회 참여 대상을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을 활용하는 동화 작가 및 연구자, 문화콘텐츠 전공자, 문학치료학 전공자 등 응용학문 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저변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집살이 이야기’나 ‘이주민 구술 설화’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담당할 연구자들과 연계하여 학술대회를 기획한다면, 전통과 현재가 교차하는 여성 삶과 문학에 대해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심화하며 논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바리데기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신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21세기에도 고전문학은 다시 쓰이고 다양하게 향유되고 있다. 『여성문학연구』에서 근대 시기에 대하여 고전 연구자와 현대 연구자가 공통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처럼, 고전문학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사례에서도 그 원형과 지속으로서 고전문학 연구자의 관심과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현대 문학과 문학 활동으로서 현대문학 연구자가 다룰 수 있다. 고전과 현대를 잇는 문화콘텐츠나 자료에 대하여 여성주의 시각으로 윤리와 미적 가치 등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 고전문학은 더욱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면서 현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고전에서부터 현대까지 지속되는 우리들의 원형적 사고도 총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다.

김양선은 여성문학 연구에 대해 ‘여성필자-현대문학-작가, 작품론 중심의

게토화에 머물 위험성'을 지적했는데,<sup>37</sup> 이는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전 '문학'이 대학·학회 내에 갇히지 않으려면 실천을 담당하는 학제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동안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여성주의라는 방법론과 주제로써 연구자들에게 시대와 장르·매체를 확장하는 연구 장을 제공했던 만큼, 고전문학 연구가 학문의 실천적 의의를 넓히는 장 역시 본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문학연구』의 논문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문학과 문화 연구를 새롭게 이끌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전 연구 역시 지난 20년간의 성취에 더하여 이론과 응용, 실천에 이르기까지 학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공동의 업적을 쌓고 연구의 성과를 나누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여성문학연구』 1호~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2019.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여수MBC News〉 '설화로 농촌마을 특화' <https://www.youtube.com/watch?v=kxtzS2MM-DM>, 2019.3.1.

### 단행본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61-86쪽.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주의 연구의 도전과 과제—각 학문 영역에서 이뤄온 여성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한울아카데미, 2013, 36-98쪽.

---

37 김양선, 앞의 글, 661쪽.

## 논문

김민수, 「지역 설화에 나타난 숲 인식과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향—순천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385-399쪽.

김양선, 「한국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5-669쪽.

박현숙, 「설화 아카이브 현황과 활용의 문제」,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117-135쪽.

심민호, 「가문이야기와 한국족보박물관 아카이빙 사례」, 『2019년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민속박물관 자료집』,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2019, 344-350쪽.

최기숙, 「탈경계를 위한 도전: ‘고전-여성-문학-사’를 매개하는 ‘젠더 비평’의 학술사적 궤적과 방향—‘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의 학술사적 의의와 과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5-44쪽.

##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and Tasks of Classical Literature Research  
in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Hong, Na-rae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us and tasks of classical studies at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Therefore, I found the tendency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paper of classical literature i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Through this, the planning theme selected and concentrated by the academic society showed good results, but I suggested that the researcher and research subject should be expanded further.

I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papers related to classical literature account for about 15% of all papers. Despite relatively few classical research papers, topics such as women's literature and women's writing are ahead of other journals. Classical scholars were able to connect and discuss scholarly fields to study and theorize literary and cultural phenomena from classical to contemporary times. In other words, th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in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has contributed to the generalization of

theories through the history of female literature, literary phenomena and writing theories on our foundation.

In the Korean Women's Literature Association, the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achieved intensive results by planning themes. Classical researchers extended the age and genre of research with feminist methodologies and themes, and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was a space that encouraged their research. Therefore, this challenge must be carried out by more researchers. This will enrich our literary research and ensure the significance of academic social practice. To this end, this Association should encourage future generations to study classics in feminism, continue long-term research such as th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and theories of women's literature, and be interested in researching women's culture materials and academic projects.

As the population decreases and the research environment changes, it is difficult for future generations to continue research, hoping for academic support. In order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classical researchers,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applied scholars or to study the subjects in which classical and contemporary interests coexist. When communicating with related disciplines or conferences, the current literature following the classics will be better understood. Our original thoughts and feelings will also be grasped. It is hoped that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will continue its practical significance as an open field of study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classical, modern and genr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key words: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Korean Women's Literature Association, Korean Women's Literature Society, Feminism, Feminist Aesthetics, communication.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